

# 서울지역 지명전설의 사례와 콘텐츠 활용 방안

## Case study of the Place Name Legends of SEOUL and the Application Plan for the Contents

홍성규\*, 정미영\*\*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학과\*, 서울시청 문화관광디자인본부\*\*

Sung-Kyoo Hong(hong@khu.ac.kr)\*, Mee-Young Jung(meeyoungj@seoul.go.kr)\*\*

### 요약

최근 스토리텔링에 대한 관심과 연구, 개발이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전설, 역사, 문화유산 등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을 개발해 마케팅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가능성을 서울지역 지명의 전설, 설화, 이야기 콘텐츠를 통하여 발견해 보고자 한다. 먼저, 서울지역과 관련된 전설의 역사와 유형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서울지역 내 전설이 지닌 콘텐츠로서의 잠재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콘텐츠 활용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스토리뱅크의 구축이고, 둘째, 전설 체험코스 및 주변 콘텐츠와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다. 셋째, 전설, 이야기를 활용한 마을 축제의 개발이고, 넷째, 각 지역의 전설과 관련된 상품 개발이며, 다섯째, 지명전설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이다.

■ 중심어 : | 지명전설 | 스토리텔링 | 서울지역 |

### Abstract

Recently, research, development and interest in story-telling has been studied in the cultural industry across the board. In addition, the local legend, history, and the cultural heritage has been increasingly used for the marketing method. This research paper is to find the possibility from the legend, folk story and story-based contents of place names in Seoul. We'd like to find the legendary history and the type related to SEOUL, and to suggest the following application plan to maximize the potential of the contents ; Building a storybank, developing the contents-connected program, developing festivals using the legend and the folk story, developing the legend-connected product, and developing various cultural artistic contents with the place name legends.

■ keyword : | Place name legends | Story-telling | Seoul |

## I. 서론

구비문학은 '말로 된 문학'으로 설화, 민요, 무가, 판소리, 민속극, 속담, 수수께끼 등이 포함된다. 구비문학의 하위분류 중, 민중의 정서가 가장 진솔하게 표출된

문학이 설화이다. 설화는 전승되는 지역주민의 정서와 의식이 가장 솔직하고 선명하게 투영되어 전승자와 수용자 사이에 감동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꾸준히 지속되는 것이다[1].

설화는 다시 신화, 전설, 민담으로 나누어지며, 이중

접수일자 : 2013년 10월 21일

수정일자 : 2013년 11월 21일

심사완료일 : 2013년 12월 02일

교신저자 : 홍성규, e-mail : hong@khu.ac.kr

특히 지역성이 강한 설화를 전설이라고 한다. 전설은 특정 시대 또는 특정 지역을 이야기의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시대 또는 어느 지역의 이야기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2]. 바우만(Hermann Baumann) 역시 "전설은 무대가 대개 확정된 주지(周知)의 장소이고, 사건이 일어났던 때도 태초에 창조가 되던 시대가 아닌 그보다 후의 일정한 과거시대이다. 또 등장인물도 역사적으로 실존한 인물이 대부분이다 [3]."고 언급한 바 있다.

최근 스토리텔링에 대한 관심과 연구, 개발이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전설, 역사, 문화유산 등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을 성공적으로 개발해 마케팅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송파구의 '한성백제문화제', 성북구의 '아리랑축제', 관악구의 '낙성대 인현제' 등이 있다. 이러한 축제의 대부분은 그 지역의 이야기에 대하여 일차적인 내용만을 활용했을 뿐 현대적 재해석이나, 이야기의 재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전설들을 수집하고 지역 정체성을 좀 더 확고하게 살릴 수 있는 이야기, 전설 등을 재가공하여 콘텐츠화 한다면 우리 민속과 전통생활의 상당부분을 음미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잊혀져가는 문화를 전승 가능한 의미 있는 문화콘텐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작가들에 의해 가공의 예술미를 덧칠하여 세련되게 만들어 놓은 서구의 신화, 전설들에 비해, 우리의 신화, 전설, 민담은 원석에 비유할 수 있다. 레비스트로스는 이러한 이야기의 생명력은 '야생적 원형성'에 있다고 했다[4]. 우리에게서 그 야생적 원형성을 그대로 갖추고 있는 원석으로서의 신화와 전설, 민담 등이 무수히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의 '옛 것'인 전설을 통해 가장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서울지역의 전설, 설화, 이야기 콘텐츠를 통하여 발견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지명전설의 의미와 특징을 살펴보고, 서울지역의 전설이 어떻게 형성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이를 토대로 현재 서울지역 내 지명전설의 사례와 콘텐츠 활용 가능성을 고찰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 II. 지명전설의 의미와 특징

지명전설은 전설의 한 유형으로써 한 지명의 지리적 특성과 그곳에서 벌어진 사건 등의 생성과정에서의 설화적 요소가 가미된 유래담을 지칭한다[5].

지명중에는 이런 유래담에 의해서 지명으로 굳어진 것도 있고, 반대로 지명으로 정착된 후에 그 이름에 맞추어 꾸며진 이야기도 있다. 전자를 '전설지명'이라 하고 후자를 '지명전설'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지명에 의해 전설이 생겼는지, 전설에 의해 지명이 생겼는지 그 선후 관계를 밝히기는 어렵다[6].

지명전설은 인물전설에 비해 지역적인 특성이 강하다. 인물은 전국적으로 떠돌아다닐 수도 있으니 지역에 구애를 받지 않을 것이고 지명은 고정되어 있으니 전승자의 역사의식이 강하게 배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명을 통해 지역과 시대의 특성을 찾아낼 수 있고, 지명전설을 통해서 지역과 시대를 살다간 인물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을 것이다[7].

지명전설에서의 지명은 지역 주민들에 의해 불려지는 일정한 지역의 이름으로 산 이름, 바위 이름, 나무 이름, 강 이름 등과 사람 이름이 지명화되어 오늘날까지 주민들에게 불려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한다[8]. 즉, 지명전설은 전설이 가지고 있는 증거물이라는 특성을 지역이라는 일정한 지명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또한, 지명 전설은 위에서 언급한 자연적인 소재를 가지고 설명한 것 이외에,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들도 있다. 이것은 사실인 것, 사실에 허구가 덧붙여진 것, 순전히 상상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지명 전설을 통해 그 지역 주민들의 상상력과 꿈, 그리고 자연과 역사와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9].

지명전설이 해당지역의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과 결합하게 되면, 그 지명전설을 전승하는 전승자가 흥미를 갖는 요소를 갖추게 되고 또한 흥미로운 요소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과도 잘 부합하게 되며, 그 나름대로의

진실성 또한 확보하게 된다. 이렇게 지명전설의 증거물이 그 지역의 역사와 결합하여 전설이 나름대로의 진실성을 확보하게 되면 그 전설을 전승하는 지역주민들은 전설에 대하여 더욱 유대감과 애착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10].

종합하면, 지명전설은 반드시 증거물을 필요로 한다. 증거물을 벗어나고 있는 설화는 전설이 아니라 민담에 가깝다. 전설의 증거물은 특정한 사건과 결부되어 있어서 그 사건의 유래와 배경을 설명하는데 긴요하지만, 증거물의 비중이 언제나 일정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11].

인물전설에 비해 지명전설은 채록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분야의 연구가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들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지역 내 지명의 유래를 조사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리는 등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명전설은 그 나름대로의 독특성과 미학적 특징을 지니고 있어 독자적인 대상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12].

### III. 서울지역 전설의 역사와 유형

#### 1. 서울지역 전설의 역사

전설은 사람이 사는 곳에서 일어나는 구전이나 기록, 곧 그 살아가는 흔적이 전해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설의 역사란 곧 인간의 역사이며 서울의 전설의 역사는 서울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이다. 즉, 서울의 역사가 서울의 전설의 역사라 할 수 있겠다[13]. 서울의 역사 속에 나타난 대표적인 전설(설화)을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서울의 역사 속에 나타난 대표적인 전설[14]

시대	시대적 특징(증거물)	전설(설화)
신석기	바제석부, 석창석촌, 무문토기, 채식토기 발견	
서기 전	마한세력 정착, 원백제 세력 붕괴	
서기전 18	온조왕이 초기고구려 세력중 일부를 데리고 남하하여 하북 위례성(현재 강북지방)에 위치함	온조설화, 시조형제설화

서기전 6	온조가 하북 위례성(현재 강남 지방)으로 옮김, 한강 부각	온조설화 등
서기 371	근초고왕이 마한을 정복, 흡수, 마한 내에 내분 존재(주전파, 주화파)	
384년	인도승 마라난타가 침류왕 1년 불교를 백제에 도입, 불교 전래에서 일화	<삼국유사>에 마라난타가 춤을 추면서 학교 선생처럼 불교를 가르쳤다는 기록 존재 (마라(구라마):아이, 난타: 선생님)
470년	백제 개로왕 때 서울에 살던 도미의 처를 왕이 욕심낸 사건	도미설화(일본에까지 전파)
555년	신라 진흥왕 때 한강유역의 영토 편입을 기념하여 북한산에 진흥황순수비를 세움	백제 온조대왕이 세웠다는 전설이 있었으나 조선후기에 김정화가 진흥왕 이 세운 것으로 판독
590년	고구려 평원왕때 바보온달이라고 불린 온달장군이 신라에게 빼앗긴 한강유역을 탈환하려고 싸우다가 죽음	그곳의 지명이 아단성이었고 현재의 지명은 면목동 아차산임
1000년	고려 정종시대 명장 강감찬장군이 태어남	그가 서울의 큰 호환을 해결한 일이 구전설화나 문헌을 통해 전해짐
1390년	서울의 왕이 이씨가 될 것을 우려하여 오얏나무를 심고 베는 일을 계속하였다.	이것은 서울 도봉구 번동의 유래담이 됨
1394년	태조 3년 근세 조선의 수도가 된다. 계룡산, 미아리, 왕십리, 신촌 근거 등이 제기되었으나 중요근거로 결정되었다.	그 대표적 전설이 '무학대사와 왕십리' 전설임
1592년	선조대왕 25년 임진왜란	인조반정, 이괄의 난, 병자호란에 다양 한 설화가 존재
1868년	고종 5년 경복궁을 중건	재배한 선비를 군수로 임명한 사건, 시래기 국을 대접하고 원님이 된 주막 주인 등 흥선대원군에 대한 설화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이는 그의 출세에 대한 민간의 호감을 드러냄
1895년 ~조선말기	명성황후에 대한 다양한 설화 존재, 궁중의 사건, 인물 등에 대해 계속 설화로 전해져 내려옴	신임하던 일본인 궁녀 가 일본자객에게 명성 황후의 신분을 고한 이야기, 황후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충신을 기념하는 장충단 내력 등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울지역 전설(설화)의 역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15].

첫째, 역사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어느 지방의 경우보다 근거가 뚜렷하고 그 영향력이 큰 것들이다.

둘째, 인물의 활동이 강력하다. 예컨대 황회 정승, 상진정승, 대원군전설은 그 민간이 보는 역사 자체일 수가 있다.

셋째, 한국사의 축약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선사시대, 백제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특히 집중적으

로 전설, 설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조선시대를 통괄할 때 한국 역사 그 자체라고 할 것이다.

넷째, 비록 정사의 성질이 강하지만 결국 설화라는 점에서 민간의식의 표출이라고 할 것이다.

다섯째, 자료의 확대성을 들 수 있다. 여기에 도표화된 것은 극히 일부이며, 사실 서울의 전설, 설화, 이야기들은 무궁무진한 콘텐츠의 보고로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잠재성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 2. 서울지역 전설의 유형

서울지역 전설도 일반 전설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설화를 구성하는 신화와 전설, 민담 중 신화는 다시 창조신화, 개벽신화, 건국신화, 부락신화, 종교신화 등으로 구분되며, 전설은 지명전설, 역사전설, 사건전설, 인물전설, 유래전설 등이 있다. 민담은 신의 이야기, 동물 이야기, 비인간계이야기, 그리고 인간이야기 등이 있다 [16].

전설은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분류되어왔는데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장덕순은 전설을 대상에 따라 자연물, 인공물, 보조분류로 분류하였으며 조희웅은 동식물담, 신이담, 일반담, 소담, 형식담으로 분류했고 김선풍은 기원담, 자연담, 동식물담, 신앙담, 희극담, 비극담, 형식담, 기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조동일은 이기고 지기, 알고 모르기, 속이고 속기, 바르고 그르기, 움직이고 멈추기, 오고가기, 잘되고 못되기, 잊고 자르기로 분류하였다[17].

하지만 서울의 전설은 서울이라는 지역적 고착성이 있으므로 전설성이 강하고, 이 서울에서 활동한 인물, 그 인물들이 만들어낸 사건을 소재로 한 역사성이 있어서 어느 정도 사실적인 성격을 갖는다. ‘언제, 어디서, 누가’ 라는 첫 제시가 다른 전설, 설화보다 강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명전설을 주제로 한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의 분류보다 다음 서울특별시문화재위원회 <서울민속대관>에서 분류한 네 가지 유형이 적합하다 여겨 이를 따르고자 한다[18].

첫째, 역사와 인물전설이다. 무학대사의 왕십리, 강감찬의 낙성대, 태조 이성계가 이방원에게 활을 쏘던 한양대 근처의 살곶이 다리 전설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

임금들의 이야기나 역사적 증거가 남아있는 사실이 있는가 하면 뚜렷한 역사적 증거가 없이도 자기 나름으로 산 인물의 이야기들도 있다.

둘째, 산천전설로서, 서울 근교에 있는 관악산, 남한산성, 수락산, 불암산, 아차산, 도봉산, 북한산, 인왕산, 무악산, 남산, 행당동의 응봉 같은 산이거나 청계천이나 탄천 같은 시내, 한강 등을 소재로 한 것이다. 풍수설이나 지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명전설은 비교적 후대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궁궐, 대문, 성에 관련된 전설이다. 서울의 지역적, 문화적 특징으로 인하여 경복궁과 사대문에 대한 이야기, 성을 넘어서 가야 하는 미아리고개 등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넷째, 동명유래전설을 들 수 있다. 서울에는 많은 동이 있고 그곳마다 전설이 있다. 예를 들면, 조선 중기 때 인조대왕이 이괄의 난을 피해 피난 갈 때 말위에서 죽 한 사발을 먹고 떠난 곳이 양재동 말죽거리이다.

수유리는 우이동이나 회계사에서 내리는 물이 질펀하게 넘었다고 해서 무너미(물넘이)라고 하는데, 이런 간단한 지명, 동명 유래가 있는가 하면, 효자가 구과발진관 내에 있는 아버지 산소를 매일 참배하던 중 이에 감동한 호랑이가 효자를 업어주어 효자동이 되었다는 유래가 있기도 한다. 서울의 많은 동명유래전설은 곧 서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하면, 서울이라는 지역성과 역사적 증거물을 표현한 역사와 인물전설, 산천전설, 궁궐·대문·성의 전설, 동명유래 전설 모두 서울지역의 지명전설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유형에 따른 서울지역 전설의 분류

유형	전설(설화)
역사와 인물전설	왕십리, 낙성대, 살곶이 다리 전설 등
산천전설	관악산, 남한산성, 수락산, 불암산, 아차산, 도봉산, 북한산, 이노양산, 무악산, 응봉 등
궁궐, 대문, 성 전설	경복궁, 사대문, 미아리고개 등
동명 전설	양재동 말죽거리, 수유리 무너미, 효자동 등

다음 장에서는 서울의 대표적인 지명전설의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콘텐츠 활용 방안에 대하여 모색해 보고자 한다.

#### IV. 서울지역 지명전설의 사례와 콘텐츠 활용 방안

##### 1. 서울지역 지명전설의 사례

첫째, 서울지역의 지명전설이 역사 또는 인물과 관련 되어 전승되는 사례이다.

<망우리[19]>

태조는 서울을 조선의 도읍지로 정하고 궁궐과 종묘 사직, 관아를 지었다. 그리고 북악산·인왕산·남산·낙산을 잇는 도성을 쌓았다. 태조는 나라의 기초를 세웠다고 생각하니 흐뭇하기만 했다.

‘이제 됐어, 도읍지를 정해 나라의 기초를 세웠으니 내 후손들이 이 나라를 잘 다스려 주겠지’ 그러나 태조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직 내가 죽어서 문힐 밋자리를 찾지 못했잖아. 그런데 어찌 후손이 잘되기를 바라는가?’

태조는 풍수지리에 관심이 많았다. 성을 쌓고 사대문을 낼 때, 남쪽에 있는 관악산에 불기운이 있다고 하자, 그것을 막을 비책으로 산 위와 남대문 앞에 연못을 팠다. 또한 불기운을 막으려면 남대문이 늘 깨어 있어야 한다며 ‘승례문’이라고 쓴 현판을 세로로 달았다. 당시에 사람들은 후손들이 복을 받고 잘되려면 조상의 밋자리를 잘 써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용하다는 지관들을 불러 명당자리를 찾게 했다.

‘나도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문힐 좋은 밋자리를 구해야만 해. 그러지 않으면 어렵게 세운 이 나라와 왕가가 번창하지 못하고 무너질 수도 있어’

태조는 이런 생각을 하니 초조하고 근심스러웠다. 그래서 곧 용하다는 지관들을 불러 자신이 문힐 명당자리를 찾게 했다. 지관들은 방방곡곡으로 흩어져 명당자리를 구하러 돌아다녔습니다. 여러 달이 지났지만 지관이 명당자리를 찾았다는 좋은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여봐라, 오늘도 소식이 없느냐? 명당자리를 찾기가 어찌면 이리도 어렵고 힘들단 말인가?” 태조는 답답한 마음에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들만 믿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여봐라, 전국에 있는 지관들은 모두 대궐로 오라는 방을 써 붙여라.” 태조의 명에 따라 전국에는 이런 내용의 방이 나붙었다.

‘풍수지리에 밝은 사람은 지체 말고 모두 대궐로 오라.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길 것이다.’

풍수지리에 밝아 땅을 볼 줄 아는 전국의 지관들이 방문을 읽고 하나 둘 대궐로 모여들었다. 태조는 이들을 한자리에 불러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어서 문힐 좋은 밋자리를 구해 주시오. 명당자리를 찾아내 근심을 덜어 주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릴 것이요.”

대궐 마당을 가득 메운 지관들은 뿔뿔이 흩어져 저마다 명당자리를 찾아 돌아다녔다.

며칠 뒤부터 대궐로는 명당자리를 찾았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그래서 기쁜 마음에 찾아가 보면 저마다 한두 가지씩 흠이 있었다. 결국 아쉬운 마음으로 밋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의 경기 구리시 쪽으로 떠났던 지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명당자리를 찾았다는 것이다. 태조는 또 허탕을 칠까 봐 이번에는 신하들과 다른 지관들을 그곳으로 보내 알아보게 했다.

“전하, 틀림없습니다. 천하제일의 명당입니다.”

“그게 정말인가?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태조는 신하들과 지관들을 앞세워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동구릉 터를 직접 찾아갔다. 지관이 찾았다는 명당자리는 검암산 밑에 있었다.

“여기가 바로 그 자리냐? 과연 좋구나. 틀림없는 명당이야. 드디어 내가 누울 자리를 찾았구나.”

동구릉 터를 꼼꼼하게 다 둘러본 태조는 명당자리를 확인하고는 기뻐 어쩔 줄을 몰랐다. 일행은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고개를 넘게 되었다. 고갯마루에서 가마를 세우고 쉬는데, 저 멀리 동구릉 일대가 내려다보였다. 태조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중얼거렸다.

“아, 이제야 내 오랜 근심을 잊게 되었구나.”

이때부터 태조가 가마를 세우고 쉬었던 고개는 새로

운 이름을 얻게 되었다. 바로 ‘근심(憂)을 잊은(忘) 고개’라 하여 ‘망우고개’라 불렀다. 그리고 망우고개가 있는 산은 ‘망우산’, 그 동네는 ‘망우리’가 되었다.

둘째, 산천과 결합한 서울지역의 전설 사례이다.

#### <관악산 열녀암[20]>

관악산에는 열녀 이야기가 전해오는데, 그 열녀가 죽어서 된 바위, 곧 열녀암으로 달리는 정절석(貞節石)이 있었던 것이다. 이야기는 이러하다

튼튼하고 서글서글한 신랑, 착실하고 예쁜 신부.

이들의 금슬은 못사람이 칭송을 하는 바였다. 꽃이 피면 열매를 맺듯이 아이가 있을 지어다! 그들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다. 아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쁜 개도 길렀다.

남편은 사람이 좋아서 친구를 많이 두었다. 늦게까지 놀러가고 또 친구를 데리고 와서 놀고, 이런 재미있는 생활을 하던 어느 날 남편은 산에 나무를 가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밤이 되어서 걱정이 된 아내는 이웃에 사는 남편 친구들을 찾아가서

“우리 낭군이 호랑이한테 당했는지 모르니 같이 산에 올라가 봅시다!”

고 사정을 하였다. 그러나 친구들은 하나같이

“당신 남편은 그렇다 하고 우리들까지 죽게 하시려고? 못 갑니다!”며 발뺌을 했다.

“아, 남편과 정답게 어울릴 때가 언제인데..... 저렇게 비정할 수가 있는가? 사람 인심은 조석변(朝夕變)이라고 한다더니 과연 그렇구나.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더니 그렇구나. 그렇다면 나 혼자 가리라.”

그러면서 이 부인은 혼자 횃불을 밝혀 들고서 산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남편은 종내 찾을 수 없었다.

이튿날도 아내는 산에 올라가서 남편을 찾아다녔다. 허사였다.

그 이튿날도 아내는 산에 올라갔다. 아내로서 남편을 그리는 그 지극함이여. 아기를 업고 바둑이를 데리고서 산으로 가서 찾아 헤맸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 살아 있는 낭군이든, 죽어 시신이 된 낭군이든 간에 말

이다.

남편이 나무를 해 가지고 해가 지면 내려올 것만 같아서 널찍한 바위에서 기다리기로 하였다.

한 해, 두 해, 세 해, 십 년..... 이렇게 세월이 흘렀다. 그 바위를 망부대(望夫臺)라고 불렀고 거기에는 샘이 있는데 두꺼비가 한 마리 살았다.

“오라, 나에게서 바둑이와 두꺼비하고 친구가 둘이나 있구나. 아가야, 이 두꺼비와 놀아라. 먹을 거도 주고, 사이좋게 놀아라!”

이리하여서 열녀, 아기, 두꺼비, 바둑이는 함께 어울려서 살림을 하듯 사이좋게 살았다. 그 사이에 바둑이는 아주 사나운 개로 컸고 두꺼비도 집채만큼 컸다.

늑대나 여우나 심지어 호랑이가 나타나도 이 두꺼비와 바둑이가 물리쳤다. 두꺼비는 그 큰 몸통에 물을 잔뜩 담았다가 적이 오면 마구 뿜어 댔던 것이다. 호랑이라도 물벼락을 맞고 도망을 갈 정도였다.

그런데 사실은 여우나 호랑이나 뱀이나 지네 같은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으니, 사람이었다.

그 처음에 남편을 찾으러 가자고 할 때 일언지하에 거절을 하던 남자들이 이 혼자된 미인 과부에게 치근대는 것이었다.

“혼자 어떻게 사시려고요?”

“흥!”

열녀는 콧방귀를 끼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남편을 찾아가자고 애절하게 호소를 할 때 못하겠다는 자들이 이제는 혼자 산다고 동정까지 하는구나! 그래도 치근치근 대는 남자도 있으면,

“바둑아 물어라!”

“두껍아 물을 뿜어라!”

하고 명을 내렸다. 그러면 이 둘은 인정사정도 볼 것 없이 접근하는 남자들을 물리쳤던 것이다.

어떤 자는 아주 집요하게 끈기 있게 녀살롱게 다가왔다. 그러나 열녀는

“흥, 거절을 할 때는 언제고, 이제 나를 위하는 척 하는 것은 언제요? 다 그만 두시오. 나는 살아서 돌아올 낭군을 기다리면서 이 개와 두꺼비와 평생을 살 것이요!”

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니 열녀 소리는 드높아갔다.

그 동네 남자나 이웃 동네 남자들이 군침을 삼키면서 덤뻐으나 다 혀사였다. 그러니 열녀가 아니라?

사실은 이 열녀를 차지할 욕심으로 그 남편에게 “산 속에 들어가서 나무하자, 약초를 캐자!”

고 한 뒤에 산에 들어가서는 그만 죽어서 땅속에 감쪽같이 묻고 말았던 것이다.

그래야만 저 아리따운 과부를 차지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자기들 뜻대로 일이 되느냐 말이다.

세월이 또 흘렀다.

열녀는 아직도 남편이 살아서 돌아오려니 하고 그 바위에 가서 기다리다가 세상을 뜨고 말았는데 죽고 나서 큰 바위가 되었으니 이것이 ‘열녀암’이다. 그러자 같이 한 식구로 지내던 바둑이도 이내 죽고 두꺼비 또한 죽었다.

그렇다. 남편을 기다리는 열녀가 있듯이 그 열녀를 따르던 두꺼비와 바둑이는 이제 주인이 세상을 뜨자 식음을 전폐하고, 이윽고 이들도 죽어서 바위가 되었던 것이다.

<아차산[21]>

서울의 한강 북쪽의 아차산에는 봉화가 있었고, 그 아래 사형장이 있었다. 명종 때 홍계관이라는 점쟁이가 있었는데 어찌나 점을 잘 보는지 그 소문이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명종은 홍계관을 궁궐로 불러 그의 능력을 시험해 보고자 하였다.

임금은 홍계관의 앞에 미리 준비한 상자를 놓고서는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아 맞추어보라고 하였다. 만약 맞추면 푸짐한 상과 벼슬을 내릴 것이며, 틀리면 백성의 마음을 어지럽게 한 죄로 당장 사형을 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한참 동안 상자를 꿰뚫어 보던 홍계관은 이윽고,

“쥐가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고하였다.

명종은 깜짝 놀랐지만 다시 한 번 물었다.

“쥐가 몇 마리나 들어 있느냐?” 그러자 당황한 홍계관은

“두 마리 아니 세 마리 이옵니다.”

라고 고하였다. 그러자 명종은

“네 이놈 틀렸다. 여봐라, 당장 저 놈의 목을 쳐라!”하

고 명령을 하였다.

홍계관이 사형장으로 끌려간 후에 명종은 ‘아차!’하면서 신하에게 그 상자 안에 암놈이 들어 있었는지를 물었다. 신하는 암놈과 수놈이 각각 한 마리씩 들어있었다고 하자 명종은 암놈의 배를 갈라보라고 하였다. 암놈의 배를 갈랐더니 새끼를 배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명종이 급히 사형장으로 신하를 보내었으나 이미 홍계관은 죽고 말았다. 이후로 홍계관의 사형이 집행된 이곳을 아차산으로 부르게 되었다

셋째, 궁궐, 성, 대문과 관련된 서울지역 전설의 사례이다.

<광화문[22]>

광화문은 정확하게 이르면 경복궁 광화문. 사실상 조선왕조시대를 상징하는 대문이다. 1399년 경복궁이라는 궁궐을 지을 때 궁성을 쌓는데 동문과 남문과 서문을 내게 되었다.

동문은 춘하추동으로 치면 춘(春), 곧 봄이니 아름다운 봄을 세우자고 해서 건춘문(健春門)이라고 하였다. 서문은 춘하추동으로 치면 추(秋), 곧 가을이니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가을을 맞이하자고 해서 영추문(迎秋門)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중요한 남문은 어찌할 것인가 빛이 나는 남쪽이요 여름이나 광화문(光夏門)이라고 할 것인가 여름하보다 더 좋은 세상의 빛이 되도다! 단군이나 신라의 시조가 말한 재세이화(在世理化, 임금이 세상에 있으면서 백성을 잘 다스려서 복을 주도다) 의 화(化)를 생각해서 광화문이라고 한 것이다. 보통 궁궐의 문은 한낮 12시라는 오(午)요, 정남방이라는 오(午)를 들어서 오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중국 북경 자금성도 남문은 오문이라고 가보니까 서 있던데, 우리나라는 이름도 빛날썹! 광화문이라고 한 것이다. 1399년, 임진왜란 때 이 문은 불에 탔다. 1865년 대원군이 경복궁을 지으면서 다시 지었으니 국가와 왕실의 권위가 되었다.

1927년 일제는 한국인의 정신을 없애려고 하였는데 온 우리나라 백성과 일본의 지식층의 반대로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고 동쪽으로 옮겼다. 그러다가 6.25가 나자

그만 폭격에 맞아서 불타 버렸다. 임진왜란, 일제강점, 6.25전쟁 등 민족의 수난에 이 문이 대표적으로 고생을 했다. 1968년 중건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한글로 광화문이라고 하였다.

광화문 현판 이야기를 더해보면, 이름 그대로 이 광화문이라는 세 글자는 한밤중에도 환하게 광채가 났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기상을 보이는 광을 내는 문이로다. 비록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을망정 저 광화문은 광화하고 있었으니 일제가 얼마나 속이 상할 것인가?

“저 빛이 나는 글자, 이것은 조선인의 맥이 아직도 성하다는 것이구나. 맥을 끊어야 독립을 할 마음이 생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리하여서 일제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광화문 현판에다가 칼집을 한 번 냈다.

“이만하면 광화문 기운이 사그라졌겠지.”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 여전하였다.

“에잇, 지독한 현판이군, 다시 올라가서 세 번 칼집을 내자! 그러면 서광이 사라지겠지!”

이리하여서 다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그 광화문이라는 석 자마다 칼을 찍어 냈다. 광에 칼집을 내고, 화에 내고, 문에 내고, 이리하였더니 그때부터 그만 광화문은 서광을 내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넷째, 동명과 관련된 전설 사례이다.

#### <필동[23]>

옛날에 가난했지만 성실하고 행실이 착한 선비가 과거시험을 보러가야 하는데 붓이 없어 자기가 붓을 만들어 과거를 보러갔는데, 시험 중 붓이 부러지는 바람에 떨어지고 말았다. 그걸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이를 너무 안타깝게 여겨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 명, 두 명 붓 만드는 사람이 생겨났다. 이 소문을 듣고 붓을 사려는 선비들이 모여들면서 마을의 이름을 ‘필동’이라고 하였다.

#### <양재동 말죽거리[24]>

인조 2년(1624년), 이괄(李适)이 난을 일으키자 인조는 급히 서둘러서 남쪽으로 피난 중 말 위에서 물을 한

그릇 마신 인조는 새삼 배가 고프는 것을 느껴 시장하다고 말하자 그 곳 출신 선비 중 하나가 서둘러 집에 가서 팔죽을 쑤어왔다.

전쟁 중이라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몰라 왕과 그 신하들이 말 위에서 팔죽을 먹게 되고 거기서 기원이 되어 그때 이후로 그 거리가 말죽거리가 되었다.

#### <부암동[25]>

세검정쪽 길가에 2m 가량의 부침바위가 있었던 데서 유래하였다. 아들을 원하거나 잃어버린 자식을 찾으려는 부모들이 소원을 빌면서 이 바위에 돌을 붙였다고 한다.

#### <군자동[26]>

옛날 어느 왕이 현재의 군자동 일대를 지나가다가 그 날 밤 동행하던 왕비가 이 근처에서 왕자를 낳았다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 <삼선동[27]>

옛날 어느 왕이 현재의 군자동 일대를 지나가다가 그 날 밤 동행하던 왕비가 이 근처에서 왕자를 낳았다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이상에서 서울지역 내 존재하는 지명전설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다.

종합하면, 이상의 이야기들, 전설, 민담, 신화, 풍수 등 이러한 모든 것이 서울의 자산이며 현대적인 재해석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세계적 차원에서 우리의 대표적 이미지로 내세울 수 있는 전통 중 하나이자 서울 속에 숨어 있는 미래의 가치라 할 수 있겠다.

## 2. 서울지역 지명전설의 콘텐츠 활용 방안

서울지역의 전설은 지방의 전설에 비해 역사적 사건의 배경이 되는 지역적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아쉬운 점은 지방의 전설에 비해 서울지역 전설은 그 형성배경과 시기, 형태, 구체적인 내력 등을 살펴보기에는 자료가 많이 부족하였다. 또한



각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이야기 콘텐츠를 활용한 사례 역시 많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한계 점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 내 전설을 포함한 우리의 원석과도 같은 지명전설을 콘텐츠화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설 및 지역의 이야기에 대한 스토리뱅크 구축이다. 무엇보다도 지명전설과 관련된 역사적 기록이나 사료, 구전이야기 등을 총체적으로 수집, 관리, 보존, 활용할 수 있는 스토리뱅크 구축 작업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스토리뱅크 구축이 되어야 이것을 정보화하고, 활용의 과정을 거치면서 의미 있는 지역문화 콘텐츠로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콘텐츠 사업에서 가장 활발하게 응용되고 있는 이야기는 다름 아닌 전설, 신화, 민담과 같은 구전설화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야기는 지역에 뿌리를 두고 생성되고 소통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성이 잘 반영되어 있으며,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28].

지역주민들은 일종의 마을의 역사로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왔고, 그리고 믿어왔다. 이러한 이야기는 단순히 허구로 기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역사가 되기도 하며, 문화가 되고,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뿌리가 된다. 따라서 서울지역 내 전설에 대한 스토리뱅크 구축은 이 모든 것의 중요 시발점이라 할 수 있겠다.

둘째, 지역의 전설 체험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이다. 전설에 담긴 신화적 상징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하고, 여기에 내재된 문화요소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지역 내 전설은 각각의 독특한 이야기이다. 이에 대한 스토리텔링으로 하나의 테마코스를 개발하는 것도 의미 있는 지역문화 콘텐츠가 될 것이다. 전설이 가진 특성은 한 지역의 지역성을 밝히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전설의 증거물이 존재한다는 특성을 통해 지역특화상품 개발의 충분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맑은 물이 흐른다는 뜻을 가진 일본의 '기요미즈데라(清水寺)'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찰로 778년에 엔친대사가 꿈에서 본 폭포를 실제로 오토와산에서 발견하여 이후 건축

한 것인데 이 절의 유래가 된 오토와 폭포는 예로부터 '황금의 물', '수명을 연장시키는 물'이라 하여 신성시 되어왔으며 현재는 마시면 건강, 학업, 연애에 효험이 있다는 설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29].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토리텔링이다. 스토리텔링은 문화 원형을 활용하여 유형에 알맞은 소재를 선택하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개, 연결하여 미학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상품을 만드는 것이다[30].

문화원형은 문화현상들의 공통분모로서 전형성을 지니며 지역 또는 민족 범주에서 그 민족이나 지역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른 민족이나 지역의 문화와 구별되는 고유성을 띠고 있으며, 각 요소들을 잘 간직한 전통문화이다[31]. 지역의 문화원형 가운데 문화자원 특히 이야기 자원들은 각 지역별로 특별한 장소나 인물에 대해 주로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이자 실화가 아닌 가공된 이야기로 스토리텔링하기 좋은 자원으로 평가할 수 있다[32]. 즉, 원래의 이야기 자체보다는 가공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감동적이어야 하고, 매력적으로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재가공해야 한다.

셋째, 지역축제 속에 그 지역의 전설, 이야기를 적극 활용한다. 축제가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누구나 공감하는 가치를 축제의 소재로 삼고, 이러한 축제가 지역경제의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며, 마을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음을 지역주민이 체감하여야 한다. 중국의 낙양 남쪽에 있는 관우의 무덤 관림(關林)은 삼국시대에 활약했던 관우의 무덤으로 서민 신앙의 중심이며 관제묘가 도처에 있다. 관우가 죽은 날에는 이 관림 앞에 장이 서고 이 장에는 하남성의 수만의 사람들이 모여 성황을 이룬다고 한다[33].

이러한 점에서 실제로 지역에 내려져 오는 전설을 지역문화 콘텐츠로 활용하여 마을축제를 개발한다면 지역의 장소성과 어우러져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서울지역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앞다투어 전설, 설화, 신화 등을 모티브로 한 각종 축제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단군왕검이 참성단에서 올린 제를 유래로 한 '강화 개천 대축제'에서는 마니산 참성대

에서 천재봉행을 재연하면서 단군 캐릭터를 활용한 단군 스크라스 체험, 전통 솟대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으며[34], 온달장군의 이야기를 토대로 한 충북 단양의 ‘단양온달문화축제’에서는 온달장군 학술대회와 ‘온달! 영웅의 노래’라는 뮤지컬 공연, 온달평강 연극 ‘달강달강’, 온달장군 선발대회, 온달평강 로맨스길 걷기, 온달산성 전투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35].

넷째, 그 지역전설과 관련된 문화상품이나 캐릭터 개발이다. 사람들은 특별한 이야기가 담긴 장소에 가면 그것과 관련된 문화상품이나 기념품을 구입하기 마련이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진달래꽃을 따다 우물물로 술을 빚어 아버지의 병을 고쳤다는 ‘복지검’ 전설을 토대로 충남 면천에서는 ‘면천 두견주’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이야기와 함께 시판하고 있다.

또한, 일본 교토에 있는 산네이자카(三年坂)의 경우, 그 골목이나 계단에서 넘어지면 3년 안에 죽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 액땜을 위해 근처의 기념품 가게에서는 호리병을 팔고 있다고 한다. 이는 호리병이 오뎅이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특성에 기인하고 있다[36].

이탈리아의 로마는 건국설화에서 전쟁의 신 마르스의 아들이며,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쌍둥이 중 로마 초대 왕이 되었다는 로물루스의 이름에서 딴 지명으로 지금도 로마 시내를 걷다보면 두 명의 갓난아이에게 젖을 주고 있는 늑대 그림과 조각을 자주 볼 수 있다[37].

지역마다 존재하고 있는 무궁무진한 전설과 이야기에 대한 상상력을 보다 폭넓게 활용한 상품을 모색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지명전설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이다. 기존의 전설을 단순히 그대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의 재가공을 통해 더욱 많은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 예술 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 라인 강 기슭의 로렐라이 절벽을 배경으로 한 로렐라이 전설이 수많은 시, 소설, 뮤지컬, 오페라 등의 예술작품으로 재창조[38]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지명전설을 콘텐츠화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전설이 단순히 소수의 누군가가 알고 있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대중들이 그것을 통하여 즐거움을 얻고 다양한 산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 [표 2]를 통해 앞에서 다룬 몇몇 전설들의 구체적인 콘텐츠 활용방안 예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표 3. 서울지역 지명전설을 활용한 콘텐츠 활용방안의 예

전설 유형	지역명	콘텐츠 활용방안
역사와 인물 전설	망우리	- 캐릭터: 언덕모양의 '망우' - 스토리텔링: 태조의 이야기와 연결하여 현대인의 고민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구성. - 상품개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랑구의 망우산 걷기대회와 결합, 동구릉 전망대 설치.
산천 전설	관악산 열녀암	- 캐릭터: 망부대위에 서있는 열녀 캐릭터, 바독이, 물 뿜는 두꺼비. - 축제 프로그램: 지역 열녀 선발대회, 망부대 걷기 대회 등. - 상품개발: 열녀암을 연인들의 지조를 약속하는 공간으로 상품화. 뮤지컬, 연극 등으로 현대화하여 각색.
	이차산	- 캐릭터: 쥐 모양의 캐릭터. 성급함과 실수로 상징화. - 상품개발: 시험에 응시한 학생에게 실수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는 쥐 세 마리 캐릭터상품.
궁궐, 대문, 성 전설	광화문	- 캐릭터: 광화문 현판의 축소판. - 스토리텔링: 세월이 지나고 풍경이 변해도 항상 변함없이 한 자리에서 평화를 상징하는 광화문의 모습으로 구성. - 축제 프로그램: 광화문 평화축제. - 상품개발: 미니현판, 광화문 스크라스 등.
동명 전설	필동	- 캐릭터: 붓 모양의 의인화 캐릭터. - 축제 프로그램: 붓 만들기 체험, 서예 대회, 과거시험 재현, 필기구대전. - 상품개발: 합격붓, 합격등 등 시험관련 기념품.
	말죽거리	- 캐릭터: 말과 팔죽을 추상화한 모양. - 축제 프로그램: 도시 말타기 체험, 전국 팔죽 대회, 팔죽 많이 먹기 대회, 팔죽 만들기 체험행사 등.

## V. 결론

지명전설은 한 지명의 지리적 특성과 그곳에서 벌어진 사건 등의 생성과정에서의 설화적 요소가 가미되면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양식으로 전승되어 왔다. 오늘날, 문화적 측면에서는 이미 많은 분야에 걸쳐서 지명전설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일차

적인 활용에 급급한 실정이다.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과 같이 창조적 재가공의 아이디어들을 결합한다면 우리의 전설 또한, 2차, 3차의 다른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도 활용 가능한 문화원형이 될 수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흥행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재가공,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One Source Multi User라는 문화콘텐츠 원리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서울은 지역의 역사만큼이나 다양하고도 무궁무진한 전설, 이야기들이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특히 지명 전설에 대한 콘텐츠는 중요한 지역문화 콘텐츠로써 그 의미를 충분히 담고 있다. 하지만 서울지역의 전설에 대한 형성배경, 시기, 형태, 이야기 등 구체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서울지역 내 전설이 지닌 콘텐츠로서의 잠재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스토리뱅크 구축이다. 전설에 대한 문화원형의 발굴 및 스토리텔링 개발이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단계이다.

둘째, 전설 체험코스 및 주변 콘텐츠와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다. 각 지역마다의 독창적인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셋째, 전설, 이야기를 활용한 마을축제를 개발한다.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주민 주도의 마을 이야기 축제를 개최한다.

넷째, 각 지역의 전설과 관련된 상품 개발이다. 각 전설의 상징성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다른 매체와의 연계도 모색한다.

다섯째, 전설을 주제로 한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이다.

최근 우리의 전통문화예술 콘텐츠 사업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를 계기로 우리의 전설 속에 담겨있는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세련되고, 아름답게, 그리고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으로 가공하여 세계의 무대에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울지역의 많은 전설, 이야기들이 콘텐츠 개발의 주요대상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참 고 문 헌

- [1] 장덕순,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p.9, 1995.
- [2] 장덕순, *앞의 책*, p.10.
- [3] 오바야시 다루우(兒玉仁夫 역), *신화학입문*, 새문사, p.58, 1996.에서 재인용.
- [4] 김의숙, 이창식, *한국신화와 스토리텔링*, (주)도서출판 북스힐, p.2, 2008.
- [5] 신태수, “지명전설의 구조와 의미-고령 지방의 전설을 중심으로”, *문학과 언어*, 제10집, p.19, 1989.
- [6] 도수희, “옛지명 해석에 관한 문제들”, *지명학*, 제3집, p.31, 2000.
- [7] 신태수, *앞의 논문*, pp.70-71.
- [8] 김지현, *광주 지역 전설의 문화적 활용 방안 연구 -지명전설을 중심으로*,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p.8, 2001.
- [9] 신태수, *앞의 논문*, p.76.
- [10] 김지현, *앞의 논문*, pp.19-21.
- [11] 신태수, *앞의 논문*, p.79.
- [12] 신태수, *앞의 논문*, pp.95-96.
- [13] 서울특별시문화재위원회, *서울민속대관*, 서울특별시, p.23, 1996.
- [14] 서울특별시문화재위원회, *앞의 책*, pp.23-29.
- [15] 서울특별시문화재위원회, *앞의 책*, pp.38-40.
- [16] 이진모, “영동지역 설화연구”, *관동대 박사논문*, pp.17-19, 2004.
- [17] 오종근, “남원지방 전설의 분류와 구조분석 연구”, *한국언어문학*, Vol.38, p.6, 1997.에서 재인용.
- [18] 서울특별시문화재위원회, *앞의 책*, pp.52-53.
- [19] 중랑문화원, *설화의 고향*, 중랑, pp.92-98, 2002.
- [20] <http://m.inews.seoul.go.kr>
- [21]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서울지명사전*,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pp.103-106, 2009.
- [22] 서울특별시문화재위원회, *앞의 책*, pp.223-224.
- [23] 서울특별시문화재위원회, *앞의 책*, pp.436-437.
- [24] <http://m.inews.seoul.go.kr>
- [25]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중부편*, 국토지리정보원, p.67, 2008

[26]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앞의 책, p.81.  
 [27]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앞의 책, p.89.  
 [28] 오세정, *설화와 상상력*, 제이앤씨, p.279, 2008.  
 [29] *Justgo 해외여행 가이드북02 오사카 고베 나라교토*, ㈜시공사, p.359, 2013.  
 [30] 김태영, *경남지역 관광스토리텔링 활성화 방안*, 경남발전연구원, p.18, 2008.  
 [31] 김교빈, “문화원형의 개념과 활용-특집논문 I : 문화원형의 개념과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사업”, *인문 콘텐츠*, 제6호, pp.7-22, 2005.  
 [32] 김태영, 앞의 책, pp.81-82, 2008.  
 [33] 戴信軍, “關公与關林”, *西北美術*, pp.50-51, 2011.  
 [34] <http://www.ghfestival.com/>  
 [35] <http://tour.dy21.net/tour/sub03/?menu=02030501>  
 [36] *Justgo 해외여행 가이드북02 오사카 고베 나라교토*, ㈜시공사, p.367, 2013.  
 [37] 쓰지하라 야스오, *지명으로 알아보는 교실 밖 세계사*, 혜문서관, p.214, 2005.  
 [38] 최민숙, *물의 요정을 찾아서*,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p.108, 2005.

정 미 영(Mee-Young Jung)

정회원



- 199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문학석사)
  - 1999년 8월 : Capilano College, Tourism management co-op program, Vancouver, B.C, Canada (Diploma)
  - 2007년 6월 ~ 현재 : 서울시청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한옥문화팀장
- <관심분야> : 건축, 관광, 문화콘텐츠

저 자 소 개

홍 성 규(Sung-Kyoo Hong)

정회원



- 1993년 2월 : 홍익대학교 건축학과(공학사)
- 2002년 2월 : 상명대학교 음악학과(음악학석사)
- 2005년 3월 ~ 현재 :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학과 교수

<관심분야> : 작·편곡, 음악 제작, 음악 콘텐츠, 문화콘텐츠